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일상 속 평범한 수다처럼 자연스레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다. 메일을 통해 설문을 동시에 진행했다. 설문과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엄마'라는 이름

'초보맘', '직장맘', '○○엄마', '두 딸의 엄마'…. '엄마들의 이야기'라는 주제 때문이었을까? 모두들 자신을 소개하는데 '엄마'라는 단어가 중심에 있었다.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대개의 경우 여성들은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엄마로(만) 살아간다. 결혼 전과 변함없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소개하는 중심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있었다.

'직장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은 직장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문제로 고민 중이었다. '엄마'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직업의 특성에 따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을 위해 자신의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맘'들의 경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다.

"엄마 역할이 결코 part-time job이 아니라는 거, 일과 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역할을 full-time job으로 하는 대신 제 일을 part-time job으로 바꿨어요. 늘 관찰하고, 공부하고 고민해야 그나마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엄마'들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갈증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기준'이 아닌 '성경적 기준'으로 자녀들을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열망과 갈증이 얼마나 채워지고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개인' 혹은 '해당 가정'의 몫으로 던져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 학교'와 같은 자녀 양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문제 가정 혹은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는 명제가 현실 속 엄마들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아무런 고민 없이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혼에 관해서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적지 않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결혼 이후 부딪혀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지금 엄마들은 기대와 현실 사이 어느 지점에서 힘든 길을 걷고 있다.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었죠. 부모님 세대와는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서로 대화하면서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남편은 남편으로 그리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맡아 줄 것이라 기대했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멋지게 일하는 워킹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초신자인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도 잘 맞추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여러 부분에서 부딪치면서

21세기가 되었지만 이 땅의 엄마들은 이전 세대의 엄마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으면서 살아간다.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 틀은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만큼 신앙 생활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안타까워요."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위해 직장생활은 중단하고 아이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로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이를 직접 돌볼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 21세기가 되었지만 이 땅의 엄마들은 이전 세대의 엄마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으면서 살아간다. 오히려 이전 세대는 경험하지 않았던 어려움마저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 성 역할에 대한

대개의 경우 '남편'은 '아내의 기도 목록' 상위에 위치한다. 문제의 원인이 환경이나 남편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의 신비와 원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다.

전통적 틀은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가사와 양육의 짐이 줄어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녀 양육의 부담이 가장 많은 30대 부부의 경우 10가구 중 4가구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임에도 말이다.

신앙적 부분에서 겪는 갈등도 적지 않다. 대개의 경우 '남편'은 '아내의 기도 목록' 상위에 위치한다. 문제의 원인이 환경이나 남편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숙과 준비되지 않음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많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의 신비와 원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다.

"결혼 전에는 항상 혼자 판단하고 선택했죠. 결혼 후에는 작은 일도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인 것 같아요. 또 결혼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 시간과 돈 등등 모든 것을 투자했다면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가 우선이 되다보니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투자를 하지 못하죠. 반면에 결혼 전에는 여유롭게 살다보니 이기적인 모습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나니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많죠. 대화하는 것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요. 제 성격상 가족이든 친구든 사람을 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남편은 저와 반대로 의지하는 습성이 강해요."

'결혼 준비 학교', '부부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을 꾸려 가는 경우가 많다. 기대와 현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어려움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다.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까?

엄마, 그녀들의 해법

평범한 엄마들이 스스로 찾아내 사용하고 있는 해법들이 있다. 그녀들의 해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우는 것이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변의 사람들, 특히 남편과 함께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일시적 해결책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다.

"엄마의 역할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조카도 없었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했죠. 신앙의 전수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야 여러 가정들의 자녀 교육이나 양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늘 바쁜 워킹맘으로, 먹이고 재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헉헉거리다가 아이를 대하는 양육태도나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의 준비가 부족했죠. 부모로서의 배움의 기회가 필요했어요. 제 경우에는 교회에서 아이 또래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 안에서 둘 다 연합하여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가 중요하죠.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서운한 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생각의 차이를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 세상기준,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다행히 성경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훨씬 행복해졌어요. 물론 여전히 부지런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 안타까워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의 이야기이다. 특별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다.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자 이웃의 이야기이다.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 전쟁터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필수적인 자원은 무엇일까? 엄마들의 가슴에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꿈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며 선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아직 거리가 멀지만,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만, 남편의 아내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결국엔 내 이름으로 평가 받을 때, 나의 달란트도 잘 사용해서 녹슬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